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문 가 은

2012년 2월



<국문 초록>

부모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 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별, 계열에 따른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3개 고등학교의 1,2학년  
남, 여 796명을 대상으로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62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지지 측정을 위해 Barrera(1981)의 Inventory of Socially

\* 본 논문은 201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Supportive Behavior(ISSB)를 기초로 하여 박지원(1985)이 만든 것을 윤혜정(1993)과 이정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Ta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의 단축형인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에 의해 독립표본 t검증,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열에 따른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는 전문계 고교생보다 일반계 고교생이 높게 지각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전문계 고교생보다 일반계 고교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 지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하위변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아버지의 물질적 지원과 평가적 지지가 많을수록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에는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직업정보에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문제해결에는 물질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전체와 하위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모든 변인에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따라서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부모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지지가 진로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토대로 고교생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	4
II. 이론적 배경 .....	5
1. 부모지지의 개념 및 기능 .....	5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의 와 특징 .....	8
3.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4
1. 연구대상 .....	14
2. 연구도구 .....	15
3. 연구절차 .....	17
4. 자료처리 .....	17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8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8
2. 성별, 계열에 따른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	19
3. 아버지, 어머니 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23
4. 아버지, 어머니 지지 및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	32
V. 요약, 결론 및 제언 .....	35
참고문헌 .....	40
Abstract .....	45
부    록 .....	48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 현황 .....	14
<표Ⅲ-2> 부모 지지 문항 구성과 신뢰도 .....	15
<표Ⅲ-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항 구성과 신뢰도 .....	16
<표Ⅳ-1> 변인들의 일반적 현황 .....	18
<표Ⅳ-2> 성별에 따른 부모지지의 차이검증 .....	19
<표Ⅳ-3>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	20
<표Ⅳ-4> 계열에 따른 부모지지의 차이검증 .....	21
<표Ⅳ-5>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	22
<표Ⅳ-6> 목표선택에 대한 아버지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4
<표Ⅳ-7> 미래계획에 대한 아버지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4
<표Ⅳ-8> 직업정보에 대한 아버지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5
<표Ⅳ-9> 문제해결에 대한 아버지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5
<표Ⅳ-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버지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6
<표Ⅳ-11> 목표선택에 대한 어머니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8
<표Ⅳ-12> 미래계획에 대한 어머니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8
<표Ⅳ-13> 직업정보에 대한 어머니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9
<표Ⅳ-14> 문제해결에 대한 어머니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29
<표Ⅳ-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 지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	30
<표Ⅳ-16>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	32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하여 흥미와 가치, 능력, 한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알맞은 진로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여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과 진로문제를 명확히 알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직업들을 탐색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청소년들의 주된 관심사이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며,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이 전국 1,500여 명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갈등,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 진로 정보 부족 등과 같은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45.7%)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김봉환(2001)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 문제를 보면 대부분 진학, 진로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에 자신감도 없고 뚜렷한 목적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상담센터, 혹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의 1/3이 진로결정 및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이은경, 2001), 중·고등학생 시기 이후에도 진로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결정에 대한 어려움은 중·고등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과정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Super(1977)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진로발달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기본 가정은 발달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의 발달 과업의 수행 정도가 이후의 발달 과업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기영락, 2010, 재인용). 따라서 진로결정은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의사결정의 속성을 가지며, 성인이 되어서 진로에 대한 갈등과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진로탐색 및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로 및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생각, 욕구, 태도,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목표 수립, 정보수집 등의 행동으로 이어져야한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곧 자기효능감이며,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여 선택·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제시되며(남미숙, 1998; 조아미, 2000; 이은경, 2001; Betz & Hackett, 1981), 진로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등의 진로발달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심리적 변수임이 보고되었다(최정인, 2007; 강정은, 2008). 지금까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며, 이기학과 이학주(2000)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40%라고 밝혔다.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공, 직업선택, 수학수행,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이성광, 2007)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이와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발달단계의 학습경험, 부모나 또래친구들과 교사 등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경험 등 다양한 변인이 있지만 특히 부모의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김수리, 2004; 이정규, 2006; 한덕수, 2007). 청소년은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 형성, 발전시키게 되고,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준다(문혁준, 1999). 이처럼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적절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진로결정에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다.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에 관심이 많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또한, 자기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교육적인 모임에 호감을 갖는다(허철수, 1986). 부모는 특히 교육적 발달과 진로 발달 영역에서 자녀를 돕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 역시 진로 발달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모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김수리, 2004). 따라서 진로결정을 내리는데 부모의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며, 진로계획 수행에 필요한 준비의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의 조력과 적절한 지원은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줄 것이다.

이에 진로발달의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모지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부모를 다룬 연구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모를 한 단위로 기술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시한 부모지지척도를 사용하여, 각각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민주사회로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Poulter(2006)에 의하면 아버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을 결정하는 기초로 작용한다(신종임, 2010, 재인용)고 하였다.

또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부모지지는 사회적 지지 중 하나로 제시되었고, 이것은 주로 사회적 지지자 중 어떠한 지지자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들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모지지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모지지의 하위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아버지, 어머니 지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탐색과 잠정적인 진로를 결정을 해야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그리고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별, 계열에 따른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별, 계열에 따라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버지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어머니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부모지지의 개념 및 기능

부모지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 지지가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적 지지개념이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자마다 변인에 대한 개념 및 조작적 정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Troits, 198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작용을 통해 획득한 질적, 양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인 지지 제공원과 개인에게 지각된 기능적 측면인 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Wills(1985)에 의하면 구조적 측면은 관계망의 크기, 구성원과의 접촉빈도 등의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박주연, 2011, 재인용). 기능적 측면은 지지 유형 즉 내용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측면이다(윤소연, 1993).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적응을 예언하는 데 더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주관적 지각이 개인의 적응과정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지받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 더 중요

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인식되었다(김혜은, 2008).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의 초기에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단일차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연구자들(Cohen & Hoberman, 1983; Cohen & McKay, 1983; Wilcox & Vernberg, 1985)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항목을 활용하여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단일차원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다차원의 구성체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했다(이재은, 2009, 재인용). 사회적 지지 기능의 다차원적 접근에 따라, Cobb(1976)은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 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경지지, 대화 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인임을 믿게 하는 관계망지지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자존감 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Caplan(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하면서 정보적 지지, 인지적인 안내, 유형적인 자원, 정서적인 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김성남, 2005, 재인용). 이렇듯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기능적 특성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 특히 다차원적 지지 기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연구 박지원(1985)은 여러 학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여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포괄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크게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윤혜정(1993)과 이정희(1999)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하여 부모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부모지지를 지각된

부모지지의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았다. 부모 지지의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지지로 존경, 애정, 관심, 신뢰의 행위를 포함하고 둘째,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을 말하며 셋째,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이며 넷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으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부모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자원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미는 긍정적이라고 할지라고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꼭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Troits, 1995). Helgeson(1993)은 사회적 지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지나치게 많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이거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관계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관계의 부재보다도 더욱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김미령, 2005,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직접효과와 완충효과로 나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직접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든 상관없이 심리적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완충효과는 개인들이 특정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불안 유발원이 되는 어떤 자극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을 덜 충격적이 되도록 도와 불안을 완화시킨다(박근혜, 1999)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완충효과의 역할은 다르다. Cohen & syme(1985)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망에의 소속감에 기인한다고 했으며, Norris & Chipley(1992)에 의하면 완충효과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삶의 사건을 경험할 때 높은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극복능력이나 극복행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고 하였다(김미령, 2005, 재인용). 이외에도 완충효과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들이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며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데 동의한다.

또한 여러 개념들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지지의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

관계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지는 상호 작용성을 지닌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완화, 완충, 방어, 보호 작용을 하는 저항성을 지닌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성을 지닌다. 넷째, 물질적 또는 실제적 도움을 주는 행위성을 지닌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통한 정보나 상호 관계를 인지해야 하는 인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1).

이와 같이 부모지지는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 상호 관계적이며 보호와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행위의 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부모지지는 객관적 지지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주관적 지지가 중요하며, 부모 지지를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의 구성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지지를 지각된 부모지지의 관점으로 보고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로 살펴볼 것이다.

##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의와 특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아야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Bandura(1977)는 다양한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 변화를 설명, 예언하기 위해 인지적 관점의 하나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들었다. 그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하나의 심리학적 체계 구성을 위한 중심적 개념으로써 수용하였는데, 인간 행동변화가 결국 자신이 그 행위를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성취상황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대로서 효능기대(efficacy expectancy)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의 두 형태로 구별하였다. 자기효능기대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이고, 결과기대란 이러한 행동이 산출할 것 같은 영향에 대한 판단이다. Bandura(1977)는 효능기대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보다 동기와 더 밀접히 관련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행동과정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인지 믿을 수 있더라도 만일 자신이 그런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는 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이남희, 2007, 재인용).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는데, Kanfer(1990)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장차 능력에 대한 복잡하고 인지적인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조아미(2000)는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홍지수, 2010).

개인의 효능감의 기대는 여러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습득하게 된다. Bandura(1977)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수행,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및 정서적 각성 등 4가지 원천으로부터 자신의 효능감 수준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행의 성취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 특히 수행의 초기에 일어난 실패, 노력이 충분하였음도 불구하고 일어난 실패, 외부에서 방해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만족된 성공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면 우연한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될 수 있다.

둘째로, 대리적 경험이다. 학생들은 그들 능력에 대한 정보의 원천을 직접 경험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나도 또한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는 대리적 효능감을 갖는다. 이러한 대리적 영향이 직접경험에 비해 약하다 할지라도 모델의 수행효과를 통해 지속적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셋째로, 언어적 설득이 있다. 언어적 설득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 중에서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언어설득을 통해 개인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도록 한다. 언어적 설득은 실제의 수행과 관련을 맺어 실시되면 피설득자가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정서적 각성도 효능기대의 원천이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을 때 성공을 기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생리적 흥분상태에 의거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흥분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습득된 정보가 자동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그것이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달려 있다(이남희, 2007).

Bandura(1977)에 의하면 부모는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 정보원인 다양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 획득한 경험은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시은, 2009).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 형성, 발전시키게 되고,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문혁준, 1999).

Pajares(1996)은 자기효능감의 기능을 네 가지로 논의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활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 질을 결정한다. 둘째, 활동 중에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결정한다. 셋째, 어려움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저항력, 준비도, 노력의 양과 질이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루고 견디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미경, 2004, 재인용). 즉,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어느 정도 노력할 것인가, 역경에 직면하여 어느 정도 행동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Bandura(2001)는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에게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며,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끈기를 보이는 정도와 실패 후에 얼마나 잘 대처할지와 같은 동기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선명숙, 2011, 재인용)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과 연관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청소년기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복영, 200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Hackett & Betz(1981)가 진로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이 자기효능감이라고 설명하고 진로발달이론에 Bandura 이론을 접목시킨 것으로 출발한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켜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효능감을 ‘진로결정 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다(지이레, 2010, 재인용). Hackett & Betz(1981) 이후 수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적, 기술적 진로 등 특정 영역에 관한 자기효능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최정인, 2006, 재인용). 이를 다시 Talor & Betz(1983)는 특정 영역에서 잘 할 수 있는지 보다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진로 전반에 걸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 하였다. Talor &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 및 행동 결과의 성공 여부의 기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문항의 구성은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유능감을 자가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정보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다. 목표설정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계획은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결정 할 수 있으며 처음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후회 없이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 되어 있다. 문제해결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여러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습득되며, 특히 부모는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 형성시키는 정보원이며 다양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 및 행동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3.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발달해나가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이며 부모의 역할과 지지는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불안완충기능을 행사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적응적 대처행동을 촉진시킨다. 이때 사회적 지지는 구체적인 대처자원으로 작용하여 문제해결에 유용한 도구(물질, 시간, 노동, 정보)의 제공으로 문제적 요구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며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박근혜, 1999). Barrera(1981)는 가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로부터 경험한 사랑과 수용, 안정의 느낌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직면할 때 행동장애를 막아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처 전략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박지은, 2006, 재인용). 따라서 직업변화에 따른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직업유형과 직업전망 등의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금전, 물건 등 진로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등은 진로탐색과 결정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4가지 하위변인인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 중에서 부모의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하였다(이경선, 2009). 김완수(2005)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만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엄영순(2008)은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부모지지의 연구에서 부모지지의 하위요인 중 도구적 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진로관련 자녀교육 시 추상적인 언어적 격려나 지지보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맞춰 직업정보 제공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기 인식과 이해를 도와 진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부모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지지는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에게 자기효능감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주, 2010).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중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진로의사결정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김현정, 2011), 지지적인 부모 행동은 청소년의 정보 탐색 활동을 촉진시키고, 더 나은 직업 기회와 정보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효능감을 더 증대시킨다(Kracke, 2002). 특히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부정확하고 자기 파괴적인 신념(인지)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감소시켜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수리, 2004). 진로발달변인 중 부모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갖는 것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며,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행동에서 자신감을 더 갖는다(엄영순,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는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정보탐색 활동 등을 촉진 시킨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 발달단계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으로 또래 집단, 인터넷, 매스컴 등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가치관, 사회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이며 여전히 부모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 등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적으로 보고하였고(장윤정, 1996), 선행연구(장영서, 현온강, 1998; 한미현, 1996)에서 이중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 지각에 있어서 다른 지지 제공원에 비해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했다(유전희, 2005, 재인용).

이와 같이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및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요소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30개교 중 제주시 일반계고 6개교, 전문계고 3개교, 서귀포시 일반계고 2개교, 전문계고 1개교 1, 2학년 학생 중 796명을 다단계 군집표본추출(multiple cluster sampling)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796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27명), 부모 비동거 자료(145명)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624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74	43.9
	여	350	56.1
학교	일반계고	457	73.2
	전문계고	167	26.8
전체		624	100

## 2. 연구도구

### 가. 부모지지 척도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Barrera(1981)의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ISSB)를 기초로 하여 박지원(1985)이 만든 것을 윤혜정(1993)과 이정희(1999)가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 물질적 지지(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 정보적지지(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충고, 조언, 지식제공), 평가적지지(칭찬, 소질인정, 공정한 평가 등)로 네 개 하위변인과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형으로 전혀 아니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문항구분과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부모 지지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정서적 지지	7	1 - 7	.887	.941
평가적 지지	6	8 - 13	.918	.925
정보적 지지	6	14 - 19	.943	.941
물질적 지지	5	20 - 24	.915	.926
전체	24		.970	.978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자기평가 5개 하위요인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은경(2001)은 요인분석을 통해 자기평가를 제외하고 4개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4개 하위요인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Likert 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경(2001)은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목표선택 .87, 직업정보 .77, 문제해결 .65, 미래계획 .6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구분과 하위변인 신뢰도는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목표설정	11	1,2,3,6,8,9,11,14,18,20,22	.889
직업정보	6	7,15,19,21,23,24	.826
문제해결	3	13,17,25	.653
미래계획	5	4,5,10,12,16	.842
전체	25		.951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1년 6월 22일부터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1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기로 한 해당 학교의 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 후 질문지를 전달하고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을 전달하였다. 담임교사의 주도하에 특활 및 재량 등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검사시간은 30분 정도로 충분히 주게 하였다. 작성한 질문지는 검사를 실시한 1주일 후에 연구자가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통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분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 계열에 따른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 어머니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의 하위요인과 전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부모지지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값과 VIF값을 확인한 결과, 각각 0.1이상 (.213-.409), 10이하(2.447-4.494)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아버지, 어머니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각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변인들의 일반적 현황

(n=624)

구분	요인	m	sd
아버지 지지	정서적지지	3.63	.95
	평가적지지	3.58	.90
	정보적지지	3.61	.90
	물질적지지	3.81	.86
어머니 지지	정서적지지	3.94	.83
	평가적지지	3.81	.84
	정보적지지	3.81	.86
	물질적지지	4.00	.8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선택	3.63	.75
	직업정보	3.35	.79
	문제해결	3.53	.82
	미래계획	3.18	.82

## 2. 성별, 계열에 따른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부모지지(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의 차이

성별에 따른 고교생이 지각한 어머니 지지와 아버지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성별에 따른 부모지지의 차이검증

(n=624)

구분	성별	n	m	sd	t	p
아버지 지지	남	274	3.71	.88	1.355	.176
	여	350	3.62	.80		
어머니 지지	남	274	3.91	.82	.458	.647
	여	350	3.88	.76		

성별에 경우,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모두 남자 고교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즉 성별에 따라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자(2004)는 성별에 따라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신종임(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 지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고 어머니 지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영숙(2000), 한덕수(2007)는 성별에 따라 부모지지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의 지각 차이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n=624)

구분	성별	n	m	sd	t	p
목표선택	남	274	3.63	.84	.151	.880
	여	350	3.62	.67		
미래계획	남	274	3.30	.97	3.398**	.001
	여	350	3.08	.66		
직업정보	남	274	3.38	.90	.807	.420
	여	350	3.33	.69		
문제해결	남	274	3.52	.93	-.237	.813
	여	350	3.54	.7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	남	274	3.46	.78	1.440	.208
	여	350	3.39	.54		

\*\*p<.01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는 남자(m=3.46)가 여자(m=3.3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미래계획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3.398, p<.01) 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엄영순(2008)과 김관석(2001), 이현진(2009)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자영(1996), 김동준(1997)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 남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온 이유는 과거에는 가정에서의 남녀차별교육과 특정한 직업의 선택에 있어 여성의 불리한 요건 등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전반 분위기와 의식 구조가 바뀌어 가면서 더불어 성별의 평등과 직업의 양성성, 취업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계열에 따른 부모지지(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의 차이

계열에 따른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계열에 따른 부모지지의 차이검증

(n=624)

구분	계열	n	m	sd	t	p
아버지 지지	일반계고	457	3.74	.80	4.009 ***	.000
	전문계고	167	3.44	.88		
어머니 지지	일반계고	457	3.97	.76	4.053 ***	.000
	전문계고	167	3.68	.84		

\*\*\* p<.001

계열에 따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 지지(t=4.009, p<.001)와 어머니 지지(t=4.053, p<.001)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계 고교생은 아버지 지지를 전문계 고교생에 비하여 높게 지각하였으며, 어머니 지지 또한 일반계 고교생이 전문계 고교생 보다 부모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광자(2004)의 연구결과 아버지 지지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반계 고교생이 부모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문계고교생이 전문계 고교생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오은경(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라.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n=624)

구분	계열	n	m	sd	t	p
목표선택	일반계고	457	3.71	.71	4.729***	.000
	전문계고	167	3.40	.81		
미래계획	일반계고	457	3.32	.74	2.102*	.036
	전문계고	167	3.18	.82		
직업정보	일반계고	457	3.40	.76	2.613**	.009
	전문계고	167	3.22	.86		
문제해결	일반계고	457	3.61	.79	4.017***	.000
	전문계고	167	3.31	.8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일반계고	457	3.48	.61	3.555***	.000
	전문계고	167	3.27	.74		

\* p<.05, \*\* p<.01, \*\*\* p<.001

계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하위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 고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문계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계 고교생과 전문계 고교생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계 고교생이 전문계 고교생들보다 목표선택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며, 미래계획 또한 일반계 고교생이 전문계 고교생보다 미래계획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해서도 전문계 고교생보다 일반계고교생이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광자(2004)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사회에서는 학업 성적은 곧 진로결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업성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교의 구분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학업성적이 높은 인문계고교생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문계열 학생이 전문계열 학생보다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확신하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진학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3. 아버지, 어머니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가. 아버지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지지 4개 하위요인(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 4개(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6>,<표IV-7>,<표IV-8>,<표IV-9>,<표IV-10>과 같다.

<표IV-6> 목표선택에 대한 아버지 지지(하위요인)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목표선택	(상수)	2.144	.124	-	17.241***	.442	.193	75.31***
	물질적지지	.277	.049	.320	5.679***			
	평가적지지	.121	.047	.146	2.587**			

\*\*p<.01, \*\*\*p<.001

목표선택과 아버지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지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목표선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9.3%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목표선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물질적 지지이며( $\beta=.320$ ,  $p<.001$ ),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가 목표선택을 설명해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46$ ,  $p<.01$ ). 이는 하위요인 중 특히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목표선택을 잘 수립하리라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7> 미래계획에 대한 아버지 지지(하위요인)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미래계획	(상수)	1.952	.142	-	13.728***	.346	.117	42.312***
	평가적지지	.220	.053	.243	4.129***			
	물질적지지	.116	.056	.122	2.080**			

\*\*p<.01, \*\*\*p<.001

미래계획과 아버지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미래계획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1.7%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래계획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평가적 지지이며( $\beta=.243$ ,  $p<.001$ ), 다음으로 물질적 지지가 미래계획을

설명해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22, p<.01$ ). 이는 하위요인 중 특히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미래계획을 잘 하리라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8> 직업정보에 대한 아버지 지지(하위요인)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직업정보	(상수)	1.966	.135	-	14.590***	.391	.150	56.184***
	물질적지지	.236	.053	.258	4.458***			
	평가적지지	.137	.051	.157	2.719**			

\*\*p<.01, \*\*\*p<.001

직업정보와 아버지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지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직업정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5%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직업정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물질적 지지이며( $\beta=.258, p<.001$ ),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가 직업정보를 설명해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57, p<.01$ ). 이는 하위요인 중 특히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직업정보를 잘 탐색하리라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9> 문제해결에 대한 아버지 지지(하위요인)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문제해결	(상수)	2.451	.146	-	16.815***	.294	.084	29.441***
	물질적지지	.169	.057	.177	2.951**			
	평가적지지	.123	.055	.135	2.258**			

\*\*p<.01, \*\*\*p<.001

문제해결과 아버지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을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8.4%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물질적 지지이며( $\beta=.177, p<.01$ ),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가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35, p<.01$ ). 이는 하위요인 중 특히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버지 지지(하위요인)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목표선택	(상수)	2.144	.124	-	17.241***	.442	.193	75.31***
	물질적지지	.277	.049	.320	5.679***			
	평가적지지	.121	.047	.146	2.587**			
미래계획	(상수)	1.952	.142	-	13.728***	.346	.117	42.312***
	평가적지지	.220	.053	.243	4.129***			
	물질적지지	.116	.056	.122	2.080**			
직업정보	(상수)	1.966	.135	-	14.590***	.391	.150	56.184***
	물질적지지	.236	.053	.258	4.458***			
	평가적지지	.137	.051	.157	2.719**			
문제해결	(상수)	2.451	.146	-	16.815***	.294	.084	29.441***
	물질적지지	.169	.057	.177	2.951**			
	평가적지지	.123	.055	.135	2.25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전체)	(상수)	2.128	.109	-	19.470***	.441	.192	75.035***
	물질적지지	.199	.043	.262	4.650***			
	평가적지지	.150	.041	.207	3.669***			

\*\*p<.01,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아버지 지지 하위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하여 아버지 지지의 하위변인 중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9.2%의 설명력을 가진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물질적 지지이며( $\beta=.262, p<.001$ ),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207, p<.001$ ). 이는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adj-R^2$ 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아버지 지지는 목표선택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adj-R^2=.193$ 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 지지는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목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미래계획( $adj-R^2=.117$ )과 직업정보( $adj-R^2=.150$ ), 문제해결( $adj-R^2=.084$ )의 순으로 아버지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지지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의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목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20, p<.001$ ). 둘째, 아버지의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직업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57, p<.001$ ).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이며, 특히 아버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정서적 접촉을 원하지만 일중심의 생활로 자녀와 접촉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진로 지도 및 교육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보다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서로 독립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나. 어머니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지지 4개 하위요인(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 4개(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1>,<표IV-12>,<표IV-13>,<표IV-14>,<표IV-15>와 같다.

<표IV-11> 목표선택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 R <sup>2</sup>	F
목표선택	(상수)	2.032	.135	-	15.025***	.440	.191	74.543***
	평가적지지	.244	.053	.275	4.600***			
	물질적지지	.168	.053	.188	3.144**			

\*\*p<.01, \*\*\*p<.001

목표선택과 어머니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어머니 지지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목표선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목표선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평가적 지지이며( $\beta=.275$ ,  $p<.001$ ), 다음으로 물질적 지지가 목표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88$ ,  $p<.01$ ). 이는 고교생이 특히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목표선택을 잘 하리라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12> 미래계획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미래계획	(상수)	1.990	.139	-	14.354***	.404	.160	60.421***
	평가적지지	.259	.071	.267	3.637***			
	물질적지지	.143	.070	.150	2.047**			

\*\*p<.01, \*\*\*p<.001

미래계획과 어머니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어머니 지지의 하위변인 중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미래계획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미래계획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평가적 지지이며( $\beta=.267, p<.001$ ), 다음으로 물질적 지지가 목표선택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50, p<.01$ ). 이는 하위요인 중 특히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미래계획을 잘 하리라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13> 직업정보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직업정보	(상수)	1.891	.138	-	13.666***	.400	.157	59.062***
	정보적지지	.211	.068	.228	3.107**			
	평가적지지	.174	.069	.186	2.526**			

\*\*p<.01, \*\*\*p<.001

직업정보와 어머니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지지의 하위변인 중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직업정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임을 나타냈으며, 15.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직업정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정보적 지지이며( $\beta=.228, p<.01$ ),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가 직업정보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eta=.186, p<.01$ ). 이는 특히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직업정보를 잘 탐색하리라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14> 문제해결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문제해결	(상수)	2.136	.150	-	14.238***	.357	.126	91.015***
	물질적지지	.350	.037	.357	9.540***			

\*\*\*p<.001

문제해결과 어머니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 지지가 문제해결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2.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하위요인 중 특히 어머니의 물질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IV-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n=624)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	adj-R <sup>2</sup>	F
목표선택	(상수)	2.032	.135	-	15.025***	.440	.191	74.543***
	평가적지지	.244	.053	.275	4.600***			
	물질적지지	.168	.053	.188	3.144**			
미래계획	(상수)	1.990	.139	-	14.354***	.404	.160	60.421***
	평가적지지	.259	.071	.267	3.637***			
	물질적지지	.143	.070	.150	2.047**			
직업정보	(상수)	1.891	.138	-	13.666***	.400	.157	59.062***
	정보적지지	.211	.068	.228	3.107**			
	평가적지지	.174	.069	.186	2.526**			
문제해결	(상수)	2.136	.150	-	14.238***	.357	.126	91.015***
	물질적지지	.350	.037	.357	9.540***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전체)	(상수)	1.938	.117	-	16.631***	.477	.224	60.958***
	평가적지지	.157	.058	.202	2.696**			
	물질적지지	.120	.050	.154	2.417**			
	정보적지지	.117	.059	.152	1.993**			

\*\*p<.01,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어머니 지지 하위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어머니 지지의 하위변인 중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2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미치는 요인은 평가적 지지( $\beta=.202$ ,  $p<.01$ ), 물질적 지지( $\beta=.154$ ,  $p<.01$ ), 정보적 지지( $\beta=.152$ ,  $p<.01$ ) 순으로 어머니 지지의 하위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text{adj-R}^2$  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어머니 지지는 목표선택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text{adj-R}^2=.19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목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미래계획( $\text{adj-R}^2=.160$ )과 직업정보( $\text{adj-R}^2=.157$ ), 문제해결( $\text{adj-R}^2=.126$ )의 순으로 어머니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지지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평가적 지지는 문제해결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목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75$ ,  $p<.001$ ). 둘째, 물질적 지지는 직업정보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정보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 값은 .228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장 유의미 있게 설명하는 요인이며, 특히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로 부모 자녀간의 대화가 어렵고 세대 간의 의견차이가 있다(이민정, 2008).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정서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 지지 4가지 요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모든 변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서로 독립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 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IV-16>과 같다.

<표IV-16>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n=62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 아버지 정서적 지지	2. 아버지 평가적 지지	3. 아버지 정보적 지지	4. 아버지 물질적 지지	5. 아버지 지지	6. 어머니 정서적 지지	7. 어머니 평가적 지지	8. 어머니 정보적 지지	9. 어머니 물질적 지지	10. 어머니 지지	11. 목표 선택	12. 직업 정보	13. 문제 해결	14. 미래 계획	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
1	1														
2	.835**	1													
3	.805**	.819**	1												
4	.763**	.769**	.821**	1											
5	.925**	.928**	.933**	.906**	1										
6	.642**	.611**	.605**	.636**	.676**	1									
7	.604**	.639**	.619**	.629**	.674**	.886**	1								
8	.595**	.600**	.639**	.637**	.669**	.854**	.866**	1							
9	.543**	.549**	.564**	.696**	.635**	.822**	.798**	.807**	1						
10	.636**	.640**	.647**	.693**	.708**	.949**	.947**	.941**	.914**	1					
11	.367**	.392**	.367**	.432**	.421**	.412**	.425**	.413**	.408**	.442**	1				
12	.312**	.355**	.349**	.378**	.377**	.363**	.383**	.389**	.366**	.400**	.726**	1			
13	.215**	.272**	.249**	.281**	.274**	.309**	.308**	.313**	.357**	.343**	.423**	.445**	1		
14	.286**	.337**	.309**	.309**	.336**	.350**	.397**	.381**	.320**	.386**	.674**	.709**	.507**	1	
15	.354**	.408**	.383**	.421**	.423**	.432**	.456**	.451**	.437**	.474**	.845**	.867**	.725**	.875**	1

\*\*P<.0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지지 전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423, p<.01$ ) 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아버지 지지의 하위요인은 아버지 물질적 지지( $r=.421, p<.01$ )의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아버지 평가적 지지( $r=.408, p<.01$ ), 아버지 정보적 지지( $r=.383, p<.01$ ), 아버지 정서적 지지( $r=.354, p<.01$ )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 지지 전체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는 목표선택( $r=.421, p<.01$ )이 가장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직업정보( $r=.377, p<.01$ ), 미래계획( $r=.336, p<.01$ ), 문제해결( $r=.274, p<.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아버지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아버지의 물질적 지지와 목표선택( $r=.432, p<.01$ )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 $r=.215, p<.01$ )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 지지 전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r=.474, p<.01$ ) 전체와 정적인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어머니 지지의 하위요인은 어머니 평가적 지지( $r=.456, p<.01$ )의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어머니 정보적 지지( $r=.451, p<.01$ ), 어머니 물질적 지지( $r=.437, p<.01$ ), 어머니 정서적 지지( $r=.412, p<.01$ )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어머니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는 목표선택( $r=.471, p<.01$ )이 가장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미래계획( $r=.432, p<.01$ ), 직업정보( $r=.423, p<.01$ ), 문제해결( $r=.387, p<.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와 목표선택( $r=.425, p<.01$ )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와 문제해결( $r=.308, p<.01$ )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아버지 지지 중 물질적지지, 어머니 지지 중 평가적 지지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하위변인

의 상관관계 순서는 일치하였으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모든 변인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선(2009), 이정규(2006)의 연구결과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구와 일치한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그리고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별, 계열에 따른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1. 성별, 계열에 따라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버지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어머니 지지(정서적지지,평가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진로

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62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로는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만든 것을 윤혜정(1993)과 이정희(1999)가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2.0 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열에 따른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는 전문계 고교생보다 일반계 고교생이 높게 지각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전문계 고교생 보다 일반계 고교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 지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와 하위변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아버지의 물질적 지원과 평가적 지지가 많을수록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에는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직업정보에는 어머니의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문제해결에는 물질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전체와 하위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215 - .474 사이에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아버지 지지, 어머니 지지 하위변인의 상관관계 순서는 일치하였으며,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모든 변인에 있었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 2. 결론

첫째, 인문계 고교생은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전문계 고교생 보다 높게 인식한다. 우리나라사회에서는 학업성적은 곧 진로선택으로 직결되며 학업성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구분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전문계 고교생은 가정형편이나 저조한 학업성적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진학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일반계 고교생들은 전문계 고교생들에 비해 부모님의 기대치가 높고 주변의 관심과 지지 속에 나름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므로 진로결정에 자신감이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부모지지를 높여 진로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탐색하도록 하여 진로선택에 자신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특히, 전문계 고교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부모 및 주변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아버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이는 아버지의 정서적인 면보다는 공정한 평가와 소질인정, 그리고 물질지원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명료한 자기 지각의 틀 형성을 돕고, 학업 및 진로준비를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는 미래를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며, 적합한 진로를 잘 선택해내리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진로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소질을 인정해주고, 자녀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평가로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점점 직업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직업 전망 및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아버지와 어머니 지지 요인 중 공통적으로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 이외에 어머니의 정보적 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관련 자녀교육 시 추상적인 언어적 격려나 지지보다 진로관련 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조력과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탐색과 잠정적인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교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직업전망과 직업유형 등의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자기인식의 명료화를 돕는 피드백 기법, 물질과 서비스 지원 방법 등의 부모 교육 및 상담이 요구된다.

**다섯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을 파악하여 차별적인 조력 및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선택과 미래설계의 자신감이 부족한 고교생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여 목표선택과 미래설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직업정보 탐색에 자신감이 없는 고교생에게는 아버지의 평가적, 물질적 지지, 어머니의 정보적, 평가적 지지의 지원이 직업정보 탐색에 대한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자신감이 없는 고교생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물질적 지원과 아버지의 평가적 지지가 문제해결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위요인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르며,

이에 알맞은 차별적인 부모의 조력 및 지지 제공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고 1, 2만으로 선정하였고 한정된 집단에서 표집 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반화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를 지각된 부모지지로 한정된 것으로, 부모지지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의 질문지를 조합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아버지와 어머니 지지의 효과적인 지지유형 제시를 위해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기영락(2010).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관석(2001).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준(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령(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 연구 2(1), 99-121.
- 김봉환(2001). 상담전공자의 진로 및 직업개발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제2권 제2호, 263-277.
- 김성남(2005).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주(2010).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지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재수생의 진로 태도 성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완수(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2011).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은(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

-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자아 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자녀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박근혜(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은(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선명숙(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종임(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영순(2008).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  
응의 영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진희(2005). **시설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성격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선(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자(2004).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 일반계, 산업정  
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

- 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27-136
- 이남희(2007).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자기 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정(2008). **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 상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복영(2008).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1(1), 89-101.
- 이성광(2007).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시간전망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시은(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이영숙(2000).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 스트레스가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0(3), 571-586.
- 이정희(1999).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 문제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은(2009). **사회적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2001). **시설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윤정(1996).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 의사결정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지이레(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인(200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상담태도,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성과 간의 관계모형.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청소년의 삶과 고민-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23-113
- 한덕수(2007). 부모지지와 진로장벽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철수(1986). 고교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8집, 33-80.
- 홍지수(2010).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7). The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51, 1173-1182.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Kanfer, R.(1990). Motiva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learning: An integration of developmental, differential and cognitive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221-239.
- Kracke, B. (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19-30.
- Hackett, G.&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Ta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Tr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vulnerability-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41-362.

Tr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in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53-79.

<Abstract>

##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Moon Ga-Eun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in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of Jeju University

Advisor Huh Cheol-So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for this, we set study questions as followings:

Question 1: Is there any difference on Fa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sex and department?

Question 2: What is th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oal selection, future plan, job information, problem-solving) by Father's support (emotional support, evaluating support, information support, material support)?

Question 3: What is th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goal (selection, future plan, job information, problem-solving) by Mother's

---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2.

support (emotional support, evaluating support, information support, material support)?

Question 4: Is there any correlation in Fa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solving this problem, we implemented survey for parents'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ubjecting on 796 boys & girls' high school students with one & two grades of 13 high schools located on Jeju-do, and used 624 sheets as a analyzing data.

In case of measurement tool of the study, we used the one based on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ISSB) of Barrera (1981), made by Park Ji-Won (1985), and revised by Yoon Hye-Jeong (1993) and Lee Jeong-Hee(1999) for measuring parents' support. For measur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 used the one which Lee Eun-Gyeong (2001) validated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a shorten typ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developed by Talor and Betz (1983) subjecting on Middle & High Schools. For data analysis, we implmented independent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y SPSS for Windows 12.0.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sex.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istics but it is indicated that boys recognized Father's support and Mother's support higher than girls and in cas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 was same.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her's support, Mother's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department. It is indicated that students of general high schools recognized Father's support and Mother's support higher than thos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in cas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 was same.

Third, material support and evaluation support of Father's support are the factors affecting on who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ll areas of sub-variables, and it is indicated that the more material support and evaluation support of Father were, the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 was.

Fourth, evaluation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information support of Mother are the factors affecting on who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valuation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make a significant effect on goal selection and future plan. Also, Information support and evaluation support of Mother mak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information. And material support makes a significant effect on problem-solving.

Fifth, for whole Father's support and Mother's support and sub-variabl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ere included to all variables.

Based on above results, it is known that Father's support and Mother's support are the factors affect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refore, in order to for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necessity to Father & Mother's supports is emphasized. It is also known that positive support from parents make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dicating personal belief to self-ability to the career and based on thi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er development of high school students.



## 부 록

<부록 1> 질문지 .....	49
<부록 2> 부모지지 척도 .....	50
<부록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	52

<부록 1> 질문지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현재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이 진로와 관련하여 얼마나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으므로,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도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에는 하나의 대답만을 선택해주시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설문지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의 진로상담과 진로지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니 평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문가은 드림  
(연락처: 010-4272-1380)

■ 다음은 일반적인 기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 ) ② 여 ( )
2. 학 년: ① 1학년 ( ) ② 2학년 ( )
3. 계열: ① 일반계고등학교 ( ) ② 전문계고등학교 ( )
4. 거 주 지: ① 제주시 ( ) ② 서귀포시 ( )
5.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 부모( ) 부( ) 모( ) 기타( )

## <부록 2> 부모지지 척도

1. 다음의 내용들은 내가 생각하는 평소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1) 아버지와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O표시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1	2	3	4	5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1	2	3	4	5
4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1	2	3	4	5
7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취한 행동이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내가 그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심에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13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1	2	3	4	5
15	내가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1	2	3	4	5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1	2	3	4	5
20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1	2	3	4	5
21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1	2	3	4	5
22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3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이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1	2	3	4	5
24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 줄 것이다	1	2	3	4	5

2) 어머니와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1	2	3	4	5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1	2	3	4	5
4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1	2	3	4	5
7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1	2	3	4	5
8	내가 취한 행동이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내가 그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심에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13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1	2	3	4	5
15	내가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준다.	1	2	3	4	5
16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대체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1	2	3	4	5
20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1	2	3	4	5
21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1	2	3	4	5
22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3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이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1	2	3	4	5
24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 줄 것이다	1	2	3	4	5

### <부록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II. 다음은 **진로결정**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개만 골라 ○ 표를 하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3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5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7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8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2	3	4	5
9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어려운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	1	2	3	4	5
10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2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 과정(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3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14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15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장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16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17	취업 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잘할 수 있다	1	2	3	4	5
18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9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20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2	3	4	5
21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선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22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23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1	2	3	4	5
25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